



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비영리 2.0 대한민국 저작권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문화다양성 교육자 강민기, 민경호 편집

**안경 낀 아이와 모자 쓴 아이**

글: 릴러 하킴 엘러히, 그림: 알리 마휘케리

**해설:** 눈이 내리던 추운 어느 날,  
아이들은 전부 밖에서 눈싸움 하는데, 안경 쓴 아이와 모자 쓴 아이만 파란 지붕 집에 남아있었어요.

**안경 쓴 아이가 모자 쓴 아이에게 물었어요.**

**안경 쓴 아이 :** 왜 모자를 쓰지 않니? 모자를 쓰면 입과 코를 따뜻하게 해주잖아.  
너의 예쁜 모자를 써 봐. 그러면 넌 우주비행사처럼 보일 거야.

**해설:** 모자 쓴 아이가 말했어요.

**모자 쓴 아이 :** 난 이 모자가 싫어. 이걸 쓰면 이상해 보이거든.  
모자를 쓰지 않고 나가면 내 얼굴은 빨개질 거야.  
그런 다음 콧물이 흐르고 기침도 하고 결국 나는 감기에 걸릴 거야.  
하지만 이 모자도, 모자를 쓴 내 모습도 지겹고 다른 아이들이 나를 놀리는 것도 싫어.  
그래서 난 집에 있을 거야.

**해설:** 모자 쓴 아이가 안경 쓴 아이에게 물었어요.

**모자 쓴 아이 :** 넌 왜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있어? 안경을 써야 잘 보이지.  
너의 예쁜 안경을 써 봐. 그러면 넌 과학자처럼 보일 거야.

**해설:** 안경 쓴 아이가 말했어요.

**안경 쓴 아이 :** 난 이 안경이 싫어. 이걸 쓰면 이상해 보이거든.  
안경을 쓰지 않으면 모든 게 어둡고 흐리게 보여서 잘 걷지도 못하고,  
넘어지고, 머리도 아플 거야."  
하지만 이 안경도, 안경 쓴 내 모습도 지겹고 다른 아이들이 나를 놀리는  
것도 싫어.  
그래서 난 집에 있을 거야.

**모자 쓴 아이 :** 나도 너처럼 안경을 쓰고 싶어.

안경은 눈이 나쁜 사람들이 쓰는 거라고 엄마가 말해서 밝은 해를  
맨눈으로 쳐다보고, 어두운 곳에서 책도 읽고, 더러운 손으로 눈을 문질러  
봤어.  
그러니까 눈이 타는 것 같이 빨갱게 되더니 따갑고 통통 부었지만, 눈이  
나빠지진 않더라.

**안경 쓴 아이 :** 눈이 나쁘지 않다는 건 행운이야.

**모자 쓴 아이 :**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척도 해봤어.

그래서 엄마가 나를 의사 선생님에게 데려갔지만 내 거짓말에도  
의사 선생님은 내 눈이 아주 좋다는 걸 알아챘어.

**안경 쓴 아이 :** 오, 너는 눈이 좋아서 좋겠다.

**해설: 모자 쓴 아이가 말했어요.**

**모자 쓴 아이 :** 난 선글라스를 써본 적 있어.

하지만 집안에서 선글라스를 쓰니까 더 이상하더라.

어떤 과학자도 선글라스를 끼고 책상에서 책을 제대로 보지는 못할 거야.

**해설: 안경 쓴 아이가 말했어요.**

**안경 쓴 아이 :** 나도 너처럼 모자가 갖고 싶어.

그런 모자는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들이 쓰는 거라고 엄마가 말해서  
감기 걸린 이모를 안고 뽀뽀하고, 찬물로 목욕도 하고, 잠옷만 입고  
마당에서 놀기도 하고, 이불을 덮지 않고 잠도 잤어.

그러니까 오들오들 떨면서 재채기도 여러 번 했지만 감기에 걸리지는  
않았어.

## 안경 낀 아이와 모자 쓴 아이 2

**해설: 모자 쓴 아이가 말했어요.**

**모자 쓴 아이 :** 쉽게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건 행운이야.

난 아픈 척도 해봤어.

그래서 엄마가 나를 의사 선생님에게 데려갔지만 내 거짓말에도 의사  
선생님은 내가 멀쩡하다는 걸 알아챘어.

**안경 쓴 아이 :** 와, 넌 건강해서 좋겠다.

사촌이 모자를 빌려줘서 써봤는데, 모자를 쓰니깐 숨 쉴 때마다 안경에  
김이 서려서 더 이상하더라.

어떤 우주비행사도 김 서린 안경을 쓰고 화성까지 날아가지 못할 거야.

**해설:** 두 친구는 서로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모자와 안경을 바꿔 쓰고 거울 앞에 섰어요.

모자를 쓴 안경 쓴 아이는 잘 보이진 않았지만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우주비행사 같다고 생각했어요.

안경 쓴 아이가 웃었어요!

안경을 쓴 모자 쓴 아이는 잘 보이진 않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 모습이 과학자 같다고 생각했어요.

모자 쓴 아이도 웃었어요!

두 친구는 다른 아이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밖으로 나갔어요.

하지만 둘 다 갑자기 주저앉았어요! 모자랑 안경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거든요.

두 친구는 앞이 제대로 보일 때까지 집 안에 있기로 했어요.

그리고 한편으로 다른 아이들이 놀릴까 봐 두렵기도 했어요.  
두 친구는 기다리면서 공놀이를 하려고 했지만 잘 보이지 않아서 하지 못했어요.  
무언가 깨트릴까 봐 겁도 났지요.

그림을 그려볼까 했지만 잘 보이지 않아서 못했고,  
돌을 갖고 놀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잃어버릴까 봐 하지 못했어요.  
계속해서 다른 놀이도 해보려고 했지만 곧 지루해졌어요.  
텔레비전도 볼 수 없었지요.  
도대체 무엇을 하고 놀아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.

**안경 쓴 아이가 말했어요.**

**안경 쓴 아이 :** 이제 나가서 다른 아이들처럼 눈싸움하자.  
밖에 날씨가 상쾌하고 좋아!

**모자 쓴 아이가 말했어요.**

**모자 쓴 아이 :** 난 모자를 쓰지 않아서 감기에 걸릴 거고  
넌 안경을 쓰지 않아서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지 못할 텐데 어떡해?

둘은 한숨을 쉬었어요  
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.  
잠시 후 두 친구는 서로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트렸어요.  
모자 쓴 아이는 안경을 돌려주었고 안경 쓴 아이는 모자를 돌려주었어요.

두 친구는 다시 거울 앞에 섰어요.  
거울에는 건강하고 예쁜 아이가 웃고 있었어요.  
두 친구는 웃으며 다른 아이들을 향해 밖으로 달려나갔어요.

건강하고 예쁜 아이들이 눈 속에서 신나게 놀면서 활짝 웃고 있네요.

본 커리큘럼은 구글닷오알지(Google.org)가 후원하는 학교 안  
문화다양성 교육 확산을 위한 'Diversity Korea 프로젝트'의  
일환으로 전국 초등학교 대상 문화다양성 수업용으로  
제작되었습니다.

